광주일보
Weekend
1 제18016호 2판
2008년 3월 22일 토요일

다큐 '스타 목소리' 색다른 매력

〈김태희〉

〈김혜수〉

〈김정은〉

최불암, 김혜수, 김정은, 김태희, 김영철, 김C….

최근 스타들이 전문 성우나 아나운서들이 주로 맡았던 정통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에 도전, 시청자들에게 친근함과 색다른 감동을 주고 있다.

김태희·김혜수·김정은 등 내레이션 맡아 좋은 반응

지난 19일 김태희가 내레이션을 맡은 '수요기획-돌아갈 수 없는 땅 바그다드 편'(KBS)이 방송됐다. 김태희의 내레이션으로 방송 전부터 화제가 됐던 이 다큐멘터리는 이라크 피난민의 고단한 삶을 통해 전쟁의 상처와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 한 작품. 이날 김태희는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소녀와 가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차분하게 잘 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타들의 다큐멘터리 목소리 외출이 잦아진 것은 지난해 숱한 화제를 낳았던 6부작 다큐멘터리 '차마고도'(KBS)이후. 중견 탤런트 최불암의 절제된 억양과 중후한 목소리 톤이 대자연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소수민족의 삶을 조명한 프로그램의 내용과 잘 맞아떨어져 시청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이후 영화배우 김혜수도 지난해 12월 연쇄살인범 유영철에게 가족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의 삶을 기록한 'SBS 스페셜'의 '용서… 그 먼길 끝에 당신이 있습니까'에서 내레이션에 도전을 했다.

또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순간'에서 핸드볼 대표선수로 맹활약했던 김정은도 지난달 20일 방송된 '수요기획'의 '금메달을 향해 뛰어라. 대륙의 올림픽 꿈나무들'(KBS) 내레이션에 참여했다. 특히 김정은은 배고픔과 부상에 시달리며 운동에 매진하는 중국 아이들의 모습에 감정이입된 '김정은 표' 내레이션을 선보여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대하사극 '대왕 세종'(KBS)에서 태종으로 출연중인 중견 배우 김영철 또한 다큐멘터리 '600년의 비전, 국새'의 내레이션을 맡아 중후한 이미지와 목소리 톤으로 전문 성우 못지 않은 신뢰감을 줬다는 평가를 얻기도 했다.

가끔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생뚱맞은 이야기를 툭 던지며 개성 있는 모습을 선보였던 가수 김C는 지난 2월부터 '걸어서 세계속으로'(KBS)에 고정으로 내레이션을 맡고 있다.

'걸어서 세계속으로'는 세계의 여러 도시들을 여행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역사와 문화, 삶의 다양한 모습을 담는 프로그램으로 김C의 독특한 음색과 정감있는 말투와 어우러져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스타 내레이터의 다큐멘터리 참여는 자칫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친숙하게 느끼게 하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상태다.

하지만 객관적이고 사실 전달이 생명인 다큐멘터리에 연예인 참여로 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감정 기복 없이 차분하게 진행해야 하는 정통 다큐멘터리에 그들의 화제성과 감성 연기는 오히려 시청자들의 몰입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아시아 6개국서 음반 발매 장나라 "데뷔 때보다 더 떨려요"

가수 장나라(27)가 최근 기자회견 겸 쇼 케이스를 열고 아시아통합음반 '드림 오브 아시아(Dream Of Asia)'를 공개했다.

한국·중국·홍콩·대만·말레이시아·싱가포르·일본 등 아시아 6개 지역에서 25일부터 발매되는 이번 음반은 국내 6집을 비롯해 중국 3집, 일본 싱글 등을 아우르고 있어 아시아 통합 음반이라 이름 붙였다.

"한·중·일이 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이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들을 음반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 열심히 일만 하며 가다보니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 같아 새롭게 뜻을 다지고 싶었다."

CD 1에는 한국어 11곡, 일본어 3곡, 영어 1곡이, CD 2에는 중국어 10곡, 광동어 1곡 등 다국어로 된 총 26트랙이 수록됐다.

"가장 많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참여한 음반이다. 데뷔 때보다 더 떨린다. 또 나라 짱 닷컴에서 내는 첫 음반이어서 부담이 됐는데 여행으로 달랬다.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다녔는데 국내에도 아름다운 곳이 많다는 걸 처음 알았다."

장나라는 이번 앨범을 직접 기획하고 프로듀싱했으며 한국어 수록곡 11곡의 가사를 직접 작사했다.

"개인 경험은 거의 없다. 멜로디들이 좋아서 나도 모르게 사랑이야기가 됐다. 남녀간의 사랑을 넘어 친구간의 우정, 가족의 사랑 등 넓은 내용으로 해석해달라."

장나라는 가장 애착이 가는 곡으로 '샤이닝 데이'와 '결혼할래요'를 꼽았다.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관련해 지난해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서류를 제출하라는 제의를 받았는데 이후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다. 국내 활동을 너무하고 싶었다. 예능 프로그램은 물론 가리지 않고 열심히 오래 활동하겠다." /연합뉴스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晧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51·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팩스 222-4918
편집부 2200-629
정치부 2200-616
경제부 2200-617
사회1부 2200-618 〈팩스 222-4267〉
사회2부 2200-619 〈팩스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매체부 2200-628
체육팀 2200-627
사진부 2200-690
조사부 2200-570
경영지원국 2200-511 〈팩스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00-521 〈팩스 227-9500〉
디자인 2200-536
문화홍보국 2200-541 〈팩스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팩스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3 BOX OFFICE

영 화

(단위:명)

순위	제목	전국관객	전국누계
1	10,000 BC	46만9천152	53만9천627
2	추격자	30만4천628	407만4천950
3	스텝업 2 : 더 스트리트	29만9천649	35만4천657
4	바보	8만8천254	88만6
5	밴티지 포인트	8만2천989	91만952
6	허밍	4만9천191	6만1천447
7	마이 뉴 파트너	3만6천354	23만2천22
8	27번의 결혼리허설	3만3천128	21만1천333
9	마이 블루베리 나이츠	1만7천642	13만5천669
10	스파이더위크가의 비밀	9천162	67만2천565

〈자료제공:영화진흥위원회〉

TV

(단위:%)

순위	제 목	방송국·시청률	
1	미우나 고우나	KBS1	39.2
2	이산	MBC	28.9
3	엄마가 뿔났다	KBS2	25.7
3	조강지처클럽	SBS	25.7
5	행복합니다	SBS	22.6
6	해피투게더	KBS2	22.3
7	무한도전	MBC	21.7
8	그래도 좋아	MBC	21.7
9	이현동 마님	MBC	21.6
10	KBS 뉴스 9	KBS1	20.3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 목	장 르
1	베오울프	액션
2	식객	드라마
3	원스어폰어타임	코미디
4	세븐데이즈	스릴러
5	색, 계	드라마
6	본 얼티메이텀	액션
7	마이클 클레이튼	스릴러
8	뜨거운 것이 좋아	드라마
9	어거스트 러쉬	드라마
10	어린왕자	드라마

〈자료제공:비디오코리아〉

가 요

순위	제 목	가 수
1	원 모어 타임	쥬얼리
2	러브	브라운 아이드 걸스
3	미워도 사랑하니까	다비치
4	키싱 유	소녀시대
5	보고 싶은 날엔	박지헌
6	만약에	소녀시대 태연
7	남자때문에	주
8	마지막 인사	빅뱅
9	클래식	KCM
10	하우 지	빅뱅

〈자료제공:멜론〉